

기재부 규제입증책임제 이어... 국토부도 규제 손질 착수

# 건설산업 여건개선 기대 속 업계 “적정공사비가 1순위”

정부가 건설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스타트를 끊은 데 이어 이번에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규제 개선에 돌입했다. 건설산업 규제 개선 ‘2라운드’인 셈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규칙 등을 손질하기로 하고 업계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는 올해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규제입증책임제’의 일환이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정부 부처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건설업계와 규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첫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건설업계는 △국가계약법 관련 9건 △지방계약법 관련 10건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10건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13건 △하도급법 관련 2건 △주택법 및 민간투자법 관련 21건 등 총 65건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 국토부에 건의사항 65건 전달 이달 중순 2차회의서 논의 예정

건의사항을 사안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영위를 번거롭게 하는 사안 △위법외 정도에 비해 처벌이 과다한 사안 △공사비 현실화 △민자사업 활성화 등이다. 중장기 건설산업 발전방향도 포함됐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당초 건설법과 건진법에 대해서만 개선 건의를 할 작정이었는데, 국토부에서 먼저 범위를 넓혀달라고 요청해 여러 가지를 건의했다”면서 “건의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국토부가 적극적이어서 일단 분위기는 좋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업계는 이달 중순 2차 회의를 열고 건의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규제입증책임제를 시범 실시한 기재부는 지난달 말 국민생활·기업활동과 밀접한 3개 분야에서 총 83개의 규제를 전격적으로 폐지·개선했다.

이 중에는 건설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계약 및 조달 분야 규제 개선이 51건이나 포함됐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중심세 균형가격 산정기준 개선 △관급자재 단가 사급자재 적용 금지 △신인도 항목 감점 폭 50% 수준으로 완화 △불가항력으로 공기가 연장된 경우 간접비 부담 △기술형입찰 수의계약 시 발주자의 물량·단가 조정 근거 및 사유 공개 등 그동안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대거 포함됐다.

건설업계는 규제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좀 더 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해 적정공사비와 관련된 사안까지 개선해줬으면 하는 기대다.

업계 관계자는 “진정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선 적정공사비가 바탕이 돼야 한다. 업계에서 원하는 것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닌, 일한 만큼만 달라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희훈기자 hoony@

# 2월 국내건설수주 8.5兆... 2016년 1월 이후 '최저'

(7조8815억원)

국내 건설수주가 3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9일 대한건설협회가 조사·발표한 국내 건설 수주동향 조사에 따르면 2019년 2월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8조592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9.6%(9조5013억원) 후퇴한 것으로, 2017년 2월(13조6392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37%나 감소했다.

월별로 따지면 2016년 1월(7조8815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공부문이 2조8257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4% 떨어졌고, 민간은 5조7670억원으로 10.1% 감소했다. 공공토목은 21.4%, 민간

토목은 9.9% 감소했다. 공공 건축은 40.1% 증가한 반면 민간 건축은 10.1% 감소했다.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탓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주감소가 이어지는 형국이다. 실제 연간 국내 건설수주는 2016년 164조원을 정점으로 2017년 160조원, 2018년 154조원 등 계속 줄어들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1월(9조4616억원)에 이어 두달 연속 감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수주물량이 풀리는 3~4월에는 다소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수주실적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희훈기자

2월 국내 건설수주 추이 (단위: 원)

